사회 급속확장에도 불교e북 걸음마

[해설] 〈불교성전〉 e북 출시로 본 불교e북 현재

매년 성장하는 세계 e북 시장
코로나19 인해 성장 탄력받아
불교, 이웃종교에 크게 못미쳐
경전 · 책 안읽는 불자층 관건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조계종 출판사가 8월 9일 출시한 종단본 〈불교성전〉 e북을 두고 불교e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추세와 달리 불교계 e북 출시현황은 이웃종교와 비교해도 크게 부족한 수준으로 파악됐다. 이에 불교성전 e북 출시가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모이고 있다.

2007년 e북단말기인 '킨들'을 내놓으며 전자책 시대를 연 세계 최대 온라인서점 '아마존'은 2009년 기념비적인 내용을 발표한다. 연말 e북 판매가 종이책 판매를 앞질렀다는 것이었다.

그로부터 10여년 뒤인 2021년 e북 시장의 확대는 세계적인 추세로 자리잡았다. 미국 전자책 판매 부수를 집계하는 NPD 북스캔에 따르면, 2020년 전자책 시장 규모는 16% 이상 늘었다.

2020년 일본 e북 시장은 전년 대비 28.0% 증가한 3931억 엔(약 4조769억원 · 일본 출판과학연구소)로 전체 출판시장의 24.3%에 달했다. 각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의 영향도 있지만 태블릿을 비롯한 디지털 기기의 보급 영향도 크다는 분석이다.

코로나로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가 확장되는 가운데 e북 시장은 매년 커지고 있다.

2년 주기로 조사되는 문화체육관광부 '국민 독서실태조사'에 따르면 1년에 1권 이상 읽은 비율 중 e북 독서율은 2015년 10.2%에서 2017년 14.1%, 2019년 16.5%로 매년 늘었다. 올해 통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서점 방문이 어려워지면서 e북 판매는 더욱 증가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

전 인구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e북 시장은 더욱 강점을 띈다. 국내 출판업계는 종이책 규모의 30%까지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종교계도 발 빠르게 e북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하지만 불교계에서는 아직은 먼 이야기다. 현재 불교계 e북 관련 통계자료도 없는 실정이다. 시중에 나와 있는 책을 기준으로 본다면 교보e북 불교 코너에서는 1761권이 판매 중이다. 가톨릭 포함 기독교 9154권에 비하면 현격히 적다. Yes24서도 기독교 8598권에 비해 적은 986권이 판매 중에 있다.



조계종 출판사가 출시한 불교성전e북.

가장 큰 요인은 사회와 다르게 불교계 e북 시장 수요 자체가 많지 않다는 데 있다.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한국갤럽이 2021년 3~4월 전국(제주 제외)의 만 19세 이상 1,500명을 대상으로 한 1984-2021 한국인의 종교에서 주 1회 경전 독서자 비율은 개신교인 42%, 천주교인 35%, 불교인 3%였다.

불교출판시장 규모가 크지 않아 영세한 출판사들이 많은 것도 원인으로 분석된다. 200여 종의 e북을 선보인 불광출판사는 전담 인력이 출간되는 종이책을 모두 e북으로 출시하고 있다.

김대현 불광미디어 마케팅 부장은 "불교 서적 시장 규모가 기독교계에 비해 10분의 1수준이라고 업계서 보고 있다. e북에서의 격차는 종이책의 격차보다 더 클 것으로 본다"며 "매출 비중이 5~10% 수준에 불과하고, 인력 규모에서 차이가 있기에 불교계 출판사들이 e북 발매를 적극적으로 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시열 불교출판문화협회 사무국장은 "e북의 경우 현재는 출간까지 종이책에 비해 비용부담이 상당히 작은 편"이라며 "관건은 고령화된 불교서적 주요 소비층이 e북을 어떻게 접근 할 것인가다. 조계종단에서 캠페인 등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수지독송 운동을 펼치는 〈불교성전〉의 e북 출시를 계기로, 불교e북 시장 또한 활성화 되길 바란다"고 기대를 표했다.

삼보사찰 천리순례 함께 걷고, 기억한다

대승마야투어, 천리순례 단기프로그램 선보여

9월30일에 입재하는 순례
1박 3일 등 단기참여 눈길
코로나 상황 맞춤형 기획
개별 숙식과 보험 등 제공

한국불교의 살아있는 성지인 삼보사찰을 참배하는 일반인 대상 단기 순례 프로그램이 선보인다. 불교 전문여행사 대승마야투어는 9월 30일부터 10월 18일까지 19일간 총 423km 구간에서 진행되는 '삼보사찰 천리순례'에 동참하는 단기프로그램을 출시했다.

이번 단기프로그램에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당일코스와 주말코스(1박 3일), 삼보사찰코스(2박 3일)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단기프로그램의 장점은 코로나19 상황에 맞게 개별 숙식과 전용버스 등이 제공된다는 점이다. 국내 여행자 보험 가입을 통해 안전사고에도 대비할 수 있다.

지난해 진행된 상월선원 자비순례에서는 하루 20명이 넘는 일일 참가자들이 참여하는 등 일반불자들의 참여가 많았지만 첫 장기순례 과정에서의 동참이기에 이에 대한 지원은 미비했다. 이번 단기프로그램은 이런 참가자들이 현장에서의 애로점을 최소화하여 순례단과 함께 천리순례 향취를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세부프로그램 중 첫 번째는 10월 1일 송광사 입재일부터 10월 18일 회향일까지 당일로 동참하는 당일코스 프로그램이다.

동참금은 1인당 5만원으로 조식과 중식, 생수 등이 제공되며 국내여행자 보험 및 코스 내 부상자 버스 등도 운영된다. 해당일 새벽 3시 입재식에서부터 동참하여 하루 회향 후 서울 등 주요 거점 출발지로 돌아가는 프로그램이다.

두 번째는 금토일 주말 3일 코스 프로그램이다. 1코스는 10월 1일부터 3일까지 사성암과 화엄사까지 이어지는 총 50km의 만행체험으로 마감인원은 200명이다. 2코스는 10월 8일부터 10일 법보사찰 해인사 소시길과 고령까지 이어지는 총 49km의 만행체험으로 마감인원은 108명이다. 3코스는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표충사와 억새평원 사자평을 넘는 총 49km 만행체험으로 마감인원은 108명이다. 4코스는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억새평원 사자평을 넘고 통도사 회향식에 동참하는 48km 만행체험으로 마감인원은 108명이다.

세 번째는 삼사순례 2박 3일 코스로 하루 동안 순례단 만행순례에 동참하고, 나머지 시간을 삼사 사찰 순례에 별도로 집중하는 프로그램이다.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송광사 입재식과 첫 걸음인 22km를 동참하는 순례프로그램, 10월 3일부터 5일까지 천리순례 최대 난코스인 지리산 성삼재인 20km를 등반하는 순례프로그램, 10월 8일부터 10일까지 자연의 품속으로 들어가는 해인사 소리길 순례길인 27km를 걷는 순례프로그램,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억새평원 사자평 순례길 25km를 걷는 프로그램,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천리길 마지막 동행인 회향식 동참 순례길 23km를 걷는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 프로그램은 호텔 또는 리조트 숙박 2박과 조식 2회, 중식과 석식 3회 등이 제공된다. 동참금은 인당 49만원이다.

코로나19 관계로 출발 3일전 PCR검사 음성통보를 받은 자에 한해 참여가 가능하며, 확진 등 사유로 취소시 계약금이 전액 환불된다.

대승마야투어 측은 "삼보사찰 천리순례는 출재가 사부대중이 한마음으로 불교중흥을 기원하는 자리"라며 "스님들과 함께 불법승 삼보의 의미를 되새기고, 한국불교 근현대사에 다시없을 결사의 현장에 함께할 이들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02)730-0202 노덕현 기자

"정부, 탈원전 의지 있나…탈핵선언 회귀 안돼"

종교환경회의, 탈핵 비상선언
정치권의 탈핵 무관심에 일침

종교환경회의가 탈핵비상선언을 통해 탈핵선언에 역행하는 정부와 정치권의 행태에 일침을 가했다.

종교환경회의는 8월 19일 서울 원자력안전위원회 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온 생명의 평화로운 공존에 핵은 절대 함께 할 수 없다"고 재차 선포했다.〈사진〉 종교환경회의는 "2017년 6월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탈핵이 선언됐지만 선언 직후부터 정부의 정책은 뒷걸음질쳤다"며 "대선 공약들이 훼손되기 시작했고 탈핵의 시계는 한참을 늦춰졌다"고 비판했다.



종교환경회의에 따르면 현정부 임기 내에 오히려 신규 핵발전소가 늘었고, 2024년 완공과 가동을 앞둔 핵발전소도 존재하는 상황이다. 핵발전소가 끊임없이 고장과 사고를 반복하는 가운데 고준위 핵폐기물과 사용 후 핵연료 문제 역시 한발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종교환경회의는 "사실상 탈핵을 이룰 만한 어떤 법제정도 이루어진 바가 없고 정부 역시 공약사항을 이행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없었다"며 "심지어 정권의 임기 말이 되니 여당과 야당 가릴 것 없이 '탈 원전 정책'의 방향을 돌리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가 스스로 선언한 '탈 원전'을 이룰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한 종교환경회의는 "생명과 평화를 위한 탈핵은 타협할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기에 우리 종교인은 핵 없는 세상을 향한 모든 노력에 함께 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송지희 기자

차별금지법, 왜 제정돼야 할까?

'차별금지법과 불교' 온라인 강좌
차별금지~불교네트워트,
8월18일부터 4회로 진행

"차별금지법은 왜 제정돼야 할까?" 우리사회의 뜨거운 감자인 차별금지법의 제정필요성을 불교교리 등 분야별로 살펴 그 당위성을 알리는 온라인강좌가 시작됐다.

차별금지법 제정 불교네트워크는 8월 18일부터 '차별금지법와 불교' 주제 강좌를 진행한다. 8월 18일 이종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의 '차별금지법과 한국사회의 인권지형'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8월 24일 박병기 한국교원대 윤리교육과 교수의 '교리적 차원에서의 차별금지법 이해', 9월 1일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의 '법률적 차원에서의 차별금지법 이해', 9월 8일 이도흠 한양대 국어국문학과 교수의 '불교계 선언문 발표 및 종합토론'으로 이어진다.

주최측은 "이미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음에도, 정치적 유 · 불리에만 치우쳐 입법기관으로서의 국회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인권실현을 위한 책무를 외면하는 것은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된다"며 "이번 강좌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불자들의 이해를 높이고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불자들의 공감대를 확산시켜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의 불씨를 다시 살리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송지희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인증 승려연수과정

승려연수과정 수강생 모집
현대인을 위한 생활수행과 포교



일 정 2021년 9월 8일(수) ~ 10일(금), 2박 3일
장 소 경주 황룡원
(경북 경주시 엑스포로 40 (지번) 신평동 150-8)
문 의 031-470-3196, 3200 (월요일 휴무)
정 원 50명(선착순)
교 육 비 20만원 (국민은행, 292-01-0033-316) (재)한마음선원과학원
수업참여 오프라인(황룡원), 온라인(Zoom)

법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
▶ 생활 속 참선 수행의 원리와 교육방법
▶ 불교의 현대적 사찰 운영 사례
▶ 온라인법회 운영과 컨텐츠 제작 및 사례
▶ 마음과 과학

	1일차 (9월 8일, 수)	2일차 (9월 9일, 목)	3일차 (9월 10일, 금)
09:00~12:00		생활수행의 원리와 사례	마음과 과학 특강
14:00~17:00	불교상담과 마음치유	현대인을 위한 포교	
18:30~20:30	한마음 교육의 원리 '나로부터의 시작'	온택트 시대 법회 활용 방안	

재단법인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모바일 신청도 가능합니다.